

■제1독서: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19,9-11.11-13

그 무렵 엘리야가 하느님의 산 호렙에 9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려왔다. 주님께서 11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12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13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겹옷 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9,1-5

형제 여러분, 1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해 줍니다. 2 그것은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3 사실 육으로는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더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4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5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

도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찬미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22-33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22 예수님께서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23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24 배는 이미 물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25 예수님께서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26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 댔다. 27 예수님께서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28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29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30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 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31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32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33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 공지사항

▪ 사제를 도와 전례를 돕는 복사로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오랜 시간 함께 해온 4명의 친구들이 대학에 입학합니다. 고마움과 함께 하느님의 은총 속에 대학 생활을 잘 해 나가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축하합니다.

공지나 (가브리엘라), 박한주 (미카엘), 이하은 (레베카), 황시우 (베드로)

▪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안내 (의무 대축일)

- 8월 15일 (토) 10시 30분 | 봉헌금이 있습니다.

- 해설자: 최낙현 미카엘, 독서자: 미정

▪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 발현지 순례자 모집

일시: 2027년 1월 18일 (월) - 22일 (금) 예정

문의: 남현옥 (엘리사벳) & 김은경 (파울리나)

■ 우리 공동체 8월 축일자 :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이종준 (라우렌시오, 10일), 공승윤 (수산나, 11일), 문연국 (글라라, 11일), 조금자 (글라라, 11일), 김영애 (마리아, 15일), 김옥순 (마리아, 15일), 송민희 (마리아, 15일), 오혜리 (스텔라, 15일), 박정인 (헬레나, 18일), 이숙자 (로사, 23일), 우해수 (아우구스티노, 28일)

■ 우리들의 정성 (08/02/2026)

▪ 미사 봉헌금: \$591.00 | ▪ 교무금: 김세동 (8), 김영애 (7), 이영순 (8), 정소훈 (8), 최영표 (26.7-27.6), 최정자 (8)

교무금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하고자 하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적어도 한달 중 하루의 수익은 하느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자는 취지로 자신의 한달 수입의 1/30 (3.3%) 이라도 책정하자고 제안합니다.

납부시 교무금 봉투에 '한글 이름', '세례명', '금액', '납입하는 월'을 정확하게 적으신 후 교무금함에 넣어 주세요. 납입 내역은 다음 주 주보에, 월별로는 게시판에 공지됩니다.

August 09, 2026 연중 제 19 주일

예수님께서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마태 14,23).

Jesus went up on the mountain by himself to pray(Mt 14,23).



천주교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성당

Korean Catholic Church of Our Lady of Holy Rosary in Indianapolis

▪ 성 당 : 7536 E 46th St. Indianapolis, IN 46226

☎ (317) 542-0863 (문자메시지 가능하며, 선호합니다)

▪ 홈페이지 : indykcc.org | 이메일 : indykcckorea@gmail.com

▪ 사제관 : 7556 E 46th St. Indianapolis, IN 46226

▪ 사목회장 : 공성현 니콜라오 | 담당신부 : 김병조 베드로

▪ 주일미사 일요일 오전 11시

■ 전례 봉사자

	연중 제19주일(8/9)	연중 제20주일(8/16)	연중 제21주일(8/23)
해설	정명호 미카엘	김성숙 M. 마리아	장선애 마리아
독서	엄영준 노미경	최정자 최지나	송민희 ?
복사	황시우 베드로 류지안 레오(1세)	황시윤 바오로 강예지 가브리엘라	차루아 미카엘 정휘인 이사벨라
반주	최아영 아녜스	한혜경 아녜스	최아영 아녜스
제대	안소희 클로틸다	이명희 비비안나	공승윤 수산나
예물	엄유상 정휘인	류지안 남고은	엄유상 강예지